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壬辰倭亂에 對한 韓·日 兩國의 歷史認識-*

정 구 복

- | | |
|--------------------------|-------------------|
| I. 머리말 | 3. 강화회담 |
| II. 임진왜란에 대한 한국 측의 역사인식 | 4. 정유재란 |
| III.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 측의 역사인식 | 5. 전쟁의 성격 |
| IV. 앞으로 바람직한 양국의 역사인식 | 6. 전후의 처리와 전쟁의 영향 |
| V.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 VI. 맷음말 |
| 1. 전쟁의 발발 | 【토론녹취문】 |
| 2. 전쟁의 경과 | |

I. 머리말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며, 이를 후대인이 인식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서술된다. 특히 근대 내지 현대의 역사학은 동양의 傳統的 史學과는 달리 자료의 편찬이 아니고 역사가의 서술이기 때문에 특히 그 인식방향, 역사관에 따라 크게 다르게 기술되고 있다.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역사는 그 자체가 종결된 것이지만 역사는 역사연구를 통하여 재구성된다.

과거 역사가의 역사인식은 후대의 학자들만의 연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비록 지난 학설이지만 그 교육을 받은 영향력이 인간의 기억을 통하여 지속되며, 그 역사인식의 지속력은 국민의식 저변에 잠재하여 역사적 힘으로 작용한다.

* 본고는 2003년 6월 대마도 이즈하라의 한일역사공동위원회 2분과회의에서 발표한 원고이다. 5절은 당시 제목만 설정하고 쓰지 못했다. 이는 2004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역사 공동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넣은 것이다. 대마도 회의에서 발표는 토론문이 녹취되어 실린 관계로 문의를 흘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윤문하였음을 밝혀둔다.

임진왜란도 이에서 예외가 아니다. 과거 사건으로서 임진왜란의 전쟁은 1592년에 발발하여 1598년에 종결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일 양국간에 그 이후에도 양국의 역사인식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다르게 연구되고 서술되어 왔다. 현재 대부분의 일본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하여는 北島万次의 연구 성과가 크게 반영되어 크게 한일간에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지만, 일부의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전전의 연구 성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있다.¹⁾

따라서 본고는 일부 교과서에 반영된 문제점이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현재에도 한·일 양국이 임진왜란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 점도 있다. 본고에서 주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양국에서 민족주의적 역사관이 역사해석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를 다루었다. 양국의 역사인식에 대하여는 일본의 경우 주로 1945년까지의 단행본을 다루었고, 한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의 단행본을 주로 다루었다. 시기를 달리 잡은 것은 양국의 역사학 발달에 시기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일본인과 싸운 임진왜란을 연구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한·일 양국이 앞으로 선린우호를 다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쓴다.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은 무고한 일반 민간인에게 참혹한 피해를 입히며, 人間의理性이 송두리 채 否定되고, 武力에 의한 無慈悲한 破壞와 放火, 인명의 殺傷과 여자의 강간이 이루어지고, 자연과 문화가 송두리채 破壞되기 때문이다. 즉 戰爭은 그 자체 인간 전체의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美化와 讚揚은 앞으로 인류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은 비단 정치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차세대의 교육자가 가져야 할 역사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임진왜란에 대한 한국 측의 역사인식

한국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용어는 과거의 문헌에서는 壬辰亂, 丁酉亂, 倭變, 倭亂, 倭寇, 倭賊 등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으며, 개인들은 辰巳의 亂, 龍巳의 亂

1) 이 문장은 발표 후에 보완된 것임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壬辰倭亂”이란 용어는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에 제목으로서 맨 처음 사용된 것으로 찾아진다.²⁾

20세기 초 일본통감부의 지시를 받아 만들어진 한국의 검인정 초·중등역사 교과서에는 ‘壬辰亂’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그 서술 내용에서는 일본의 侵入, 來寇, 侵虜, 도적질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 후 “임진난”이란 용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해오다³⁾가 ‘壬辰倭亂’이 학술적 역사용어로最初로 사용한 것은 1946년에 간행된 金聖七의 《조선역사》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 남한에서는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임진왜란”이란 용어가 거의 비판없이 공식 역사용어로 정착되었고, 북한에서는 “임진 조국전쟁”으로 표기하고 있다.⁵⁾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통사인 《한국사》에서 “일본의 侵寇”, 또는 “임진왜란”으로 서술하고 있다.⁶⁾

현재 한국학계에서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난 좁게는 임진년의 전쟁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전쟁이 종결된 1597년의 정유재란까지를 포함한 전체의 전쟁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임진왜란”을 약칭하여 壬亂이라고도 칭한다.

壬辰倭亂을 마친 후 1605년 덕천막부와 담판을 한 松雲大師가 被虜人 1,295명을 송환해 오고, 1607년 回答使兼刷還使呂祐吉에 의하여 1,300명의 포로가 송환되었다. 1606년 上記回答使의 과견으로 德川幕府와 국교가 다시 튼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임진왜란은 과거의 있었던 사실로 이해하였으나 일반 국민은 일본인을 不共戴天의 恨讐로, 일본인은 진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략 추산하여 10만명에 달하는 일본군에게 被虜되었으니⁷⁾ 임진왜란은 그 유가족들에게 심한 상처를 남겨주었다. 그리고 명나라는 국가를 구원해주었다 하여 조선왕조에서는 고마움을 표하였다.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의 창시자로 알려지고 있는 申采浩는 1908년 李舜臣의 《亂中日記》와 狀啓 등을 읽고 「李舜臣傳」⁸⁾을 지어 상세한 海戰勝利를 기술하고 결론에

2) 《燃藜室記述》 권 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大駕西狩」 그러나 이 용어는 1609년의 尹根壽의 《月汀先生文集》, 《芝峯類說》, 《磻溪隨錄》 등에 서술되어 왔다.

3) 中村榮孝, 「文祿慶長の役」, 《大日本戰史》3, 1939, p.254 참조.

4) 金聖七, 《조선역사》, 조선금용조합연합회간, 1946. 그는 「임진왜란」, 「정유왜란」이란 제목으로 서술하고 있다.

5) 《조선전사》 9책, 1980.

6) 1978년에 발간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2에서는 “일본의 침구”로 표제를 내걸었으나 본문서술에서는 “임진왜란”이라 용어를 사용했고, 동위원회에서 1995년에 발행한 《한국사》 29에서는 “임진왜란”이란 제목으로 표기하였다.

7) 이장희, <왜란 중의 사회상> 《한국사》 29, 173쪽, 국사편찬위원회, 1995.

8) 1972년에 출간된 《丹齋申采浩全集》에서는 하권에서는 <李舜臣實記>라고 하였으나 1977년 개정판에서는 <이순신전>으로 실렸다. 이는 19장에 달하는 상세한 전기이다.

서 영국의 세계적인 해군 명장 넬슨 제독보다 우수한 명장임을 갈파한 영웅주의 역사관, 투쟁적 민족주의 역사관을 떴다. 그는 『난중일기』 자료를 최초로 이용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임진난을 ‘倭寇’로 풍신수길을 ‘豐臣賊’이라고 표현했다.⁹⁾

임진왜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최남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¹⁰⁾ 그가 1931년에 출간한 『임진란』은 제1부 경과와 제2부 영향으로 되어 있으나 제2부 영향에서 임난의 한국측 인물을 싣고 있어 실제 내용적으로는 3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임진왜란에 대하여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다운 연구가 없음에 있다고 자신이 밝히고 있다. 비록 그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조한 친일 역사학자였지만 그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과는 다른 역사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이 조선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관점은 역사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壬亂이 한국 측에 준 영향과 일본 측에 준 영향을 다루었으며 임란 이전까지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국력으로 일본보다 앞서다가 이를 계기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상으로는 조총의 전래, 철갑선인 거북선의 제조, 飛擊震天雷, 火車, 四瓜鉤, 蔡藜砲의 발명 등 한국인의 독창성이 돋보였다고 파악하고, 사회상의 영향으로는 “결혼에 혼혈현상, 의상과 식품에서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음과 일반 민중생활에 가요에 비애를 띠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 준 영향으로는 陶瓷器 工藝의 발달, 活字術, 두부제조법, 真彩濃墨의 畵法이 전해지고, 조선의 학문과 서적의 전래로 德川幕府의 文治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姜沆, 李真榮, 洪浩然, 高本紫溟(인동현감 李宗閑), 本妙寺 住持 日遙上人을 들었다. “일본의 상고문화의 계발이 반도인에게 신세진 것처럼 근세의 일본인이 다시 한번 문화적 발전을 조선에 힘입었다¹¹⁾”고 주장하였다.

1945년 이후 한국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동기, 과정, 영향 중 동기에 대한 연구는 극소하며 관심이 두어지지 않는 반면 과정에 대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침입한 동기로는 일본 내의 신흥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서라는 설¹²⁾이 정설화되고 있다.¹³⁾

9) 『丹齋申采浩全集』 1977년 개정판중권 『水軍第一偉人 李舜臣傳』 제12장 이후 豊臣賊, 倭賊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15장 「倭寇의 末路」라 하였고, 서술 중에는 임진난이라 서술하기도 하였다.

10) 崔南善, 『壬辰亂』 東明社刊, 1931.

11) 崔南善, 『壬辰亂』, 東明社刊, 1931. p.69. 그는 제2편 영향 중 59. 「문화선상에 있는 반도와 일본의 지위전환」이란 절에서 임진왜란을 거친 후 일본이 앞서가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12) 한우근, <임진난 원인에 대한 검토-풍신수길의 도발원인에 대하여-> 『역사학보』 1,

왜 초기 전투에서 관병이 쉽게 패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정쟁, 정부의 혹독한 수탈로 인한 민심의 이반, 흉년으로 인한 기근, 輕武崇文의 文弱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문헌자료에 의하여 논증하였기 때문에 그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였다. 앞으로 일본의 군사력과 상호 비교연구와, 구조적으로 조선조의 정치·경제·사회·행정·군사 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의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전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李炯錫의 『壬辰戰亂史』 3책(197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일의 문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는 임진왜란의 전쟁 상 특이성을 10가지를 들고 있고,¹⁴⁾ 한·중·일 자료를 비교적 꼭넓게 이용하여 전사를 서술하고, 민족적 교훈을 찾으려 하였다.

임진왜란 중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척되었다. 의병이란 자기 향토를 지키고, 국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군대로서 의병장의 통제 하에 무기와 군량을 自給하여 적과 싸운 민간군대였다. 그러나 의병장에게 국가가 직첩을 내려주고 관군과 협력을 함으로서 의병은 관군화되어 갔다. 최영희는 사회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병의 성격, 군률, 의병의 성분, 의병의 성격변화를 왕조실록 자료를 중심으로 밝혔다.¹⁵⁾ 의병장에는 전직 관료, 未仕宦者가 있으나 주로 전직 관료가 많으며, 무사에 비하여 儒者層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밝혔다. 그리고 李章熙에 의하여 관북, 관서지방, 해서의병에 연구가 이루어졌고, 義僧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특히 그는 군량의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¹⁶⁾ 이들 연구는 임진왜란의 실상을 밝히려는 실증적인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임진왜란사 연구는 의병활동 분야에 집중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는 70·8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현재까지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이 10종, 논문은 60여편이 넘는다. 이처럼 한국에서 의병사 연구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임진왜란의 역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의병은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해 항전했던 조선 측의 입장은 잘 보

1952 및 <임진왜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책, 1990.

13) 이는 韓治功의 연구결과가 이용되고 있을 뿐이고, 일본 측에서 다루고 있는 勘合貿易의 再開說, 功名說, 西歐文化의 影響說 等은 완전 도외시되고 있다. 앞에 든 국사편찬위원회 간의 『한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의 서술에서 그러하다.

14) 李炯錫, 『壬辰戰亂史』 3책,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刊, 1974년의 초판본은 3책이었고, 1994. 재판본은 4책으로 원문자료를 別卷으로 추가되었다. 재판본 11~14쪽 自序 참조.

15) 최영희, 『임진왜란의 사회동태』, 한국연구원, 1975.

16) 李章熙,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의병에 관한 사료가 풍부하고 이는 민중의 역사, 지방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남, 영남, 호서 지방의 의병에 관한 사례연구가 전적지와 관련을 지어 지방사연구의 중심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의병사 연구는 16세기 이래 지방통치권을 장악한 사림세력과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전에 관한 연구는 조성도가 신채호의 이순신전을 보완하여 쉽게 쓴 『충무공 이순신』¹⁷⁾이 출간되어 해전의 승리를 이순신의 우국충정, 철저한 사전 준비, 척후병의 사용, 지세의 이용, 신중함, 뛰어난 통솔력, 지휘장관들의 작전회의 등으로 파악하였다.¹⁸⁾ 그 후 해전의 승리의 원인을 조선 수군제도와 선박과 화기의 우수성에서 이해하려는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졌다.¹⁹⁾

임진왜란의 영향에 대하여는 사회사적인 측면이 가해졌다. 풍부한 실록자료를 통하여 糧餉問題, 叛亂問題, 降倭問題, 附倭問題 등이 연구되었다.

임진왜란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반성이 촉구되었다. 종래 陸地戰에서는 조선군이 패배하였고, 수군의 전투에서는 승리하였다는 역사인식에서 임진왜란은 결과적으로 보아 조선군이 승리하고 일본군이 패배한 전쟁이었음을 강조하는 사론이 제기되었다.

임진왜란의 戰局推移는 마치 太平洋戰爭에서 美國의 貞珠灣 大被襲撃이 그 전쟁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과 같다. 임란의 총결산은 미국에 끝까지 저항하여 制勝한 월남의 항전이나 소련의 침공을 기어이 제압한 아프카니스탄의 항전과 비유해 볼 수 있는, 끈질긴 인내와 항거로 이룩해낸 조선의 최후 승리였으며 그 결과는 적에게 보다 응징적인 것이었다. (중략) 임란 전국의 대세와 종말이 조선측의 분명한 승리였는데도 종래 임란하면 무조건 조선 측이 크게 패배한, 그러므로 적은 항상 승승장구한 것으로 잘못 인식된 까닭은, 뭐라 해도 일제식민사학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비록 侵寇나 침략이었을망정, 저들은 古來로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었음을 과시함으로써 한말 이후 이 땅의 불법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남만주철도회사 조사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池內宏의 『文祿慶長의 役』을 들 수 있다.”²⁰⁾

요컨대 1945년 이후의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자료에 의하여 전쟁의 실상을 밝힌

17) 조성도, 『충무공 이순신』, 동원사, 1969.

18)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는 없으나 전편을 읽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19) 조원래,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65~69쪽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임진왜란 참조.

20) 許善道, <壬辰倭亂史論> 『임진왜란의 재조명』 (『한국사론』 22), 189~193쪽, 國史編纂委員會, 1992.

다는 실증주의적 역사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서 벗어나 비록 자료가 집중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를 直觀的으로 찾아서 이를 해결하여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진왜란 중 민중의 생활상, 임진왜란의 성격론, 1593~94년에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染病이 의학적으로 어떤 병인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임란 중에 교통과 통신은 어떠하였는지, 일본군의 통치가 얼마만큼 실행되었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韓·中·日 자료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의 고문서 자료를 이용한 한국 측의 연구는 이형식의 연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측의 풍부한 일기자료, 고문서가 앞으로 더욱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편협한 민족사적인 견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주의적 견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65년 한·일수교가 이루어진 후 현재 배일이나 반일의 감정을 임진왜란에 결부시켜 인식하는 학자와 국민은 거의 없다. 이는 日本帝國主義의 식민지배에 대한 감정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현재의 인식은 조선전기사회를 파탄시킨 외침으로 인식되고, 한국사의 중심문제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임진왜란은 명나라 군사가 참여하였지만 한국 측에서는 3국의 전쟁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전쟁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주도적이다. 명나라 군사는 단지 지원군대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III.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 측의 역사인식

일본에서 근대에 들어와 임진왜란에 대한 최초의 저술은 1893년 木下眞弘에 의해 『豊太閤征外新史』라는 책으로 간행되었다.²¹⁾ 이 책은 아직 직접 參考하지 못하였으나 그 제목에 征伐²²⁾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일본에서 국학이 성립되던 상황에서 19세기 후반 所謂 “征韓論”이 한창 꽂을 피우다가 본격적으로 한국 진출이 이루어졌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근대 일본의 국학은 근대의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을 위한 배경 사상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점이 강하였던 이데올로기적인 연구였다.²³⁾

21) 일본측 임진왜란연구사 문헌목록 참조.

22) 征伐 : 전통적인 동양에서 정벌이라는 의미는 천자가 반란을 일으킨 제후를 쳐서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는 대단히 도덕적인 褒貶이 내포된 용어이다.

23) 민족주의는 서양에서 Nationalism 의 번역어로 사용되어 근대적인 정치이데올로기로 이

1894년에 北豊山人에 의하여 쓰여진 『文祿慶長 朝鮮役』²⁴⁾은 木下眞弘의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은 범례 제2항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은 일찍이 豊公이 우리 武를 海外에 떨친 것을 欽慕해온지 오래이다.”라고 첫머리에 쓰고 있어 일본 무력의 해외 진출을 극찬하고 있다. 또한 이어서 “최근 조선에 東學黨의 난리가 일어나 우리 제국의 군대와 청군병사가 함께 저 나라에 파견되었으니 수천의 아군이 조선반도에 상륙시킨 것은 豊公 以來 실로 이번이 처음이어서 少壯子弟들이 文祿慶長의 役을 묻는 자가 꼬리를 잇고 있다.”고 한 점에서 당시 일본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임진왜란을 “朝鮮役”이라 칭한 이유는 범례 제 1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에는 이를 “朝鮮陣”, “高麗陣”으로 칭해았는데 이를 “朝鮮役”으로 바꾼 것은 舊史에 혹 “征韓役”이라 칭하기도 했고, 이 전쟁의 주는 征明에 있지만 조선에서 싸운 것은 명나라를 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조선에서의 전투는 중도의 隨件事件으로 山崎役, 關原役의 예에 따라 戰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다.』²⁵⁾ 즉 명나라를 치라는 명을 받았으나 미처 명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이 전장의 터가 되었다는 뜻에서 “朝鮮役”이라 칭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1894년 경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읽힌 이 책의 제1장 外征의 目的이란 제목 하에 첫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神功皇后가 對馬島로부터 舟師를 發하여 三韓을 征服한 후 1391년 후에 豊臣太閤秀吉이 또한 對馬島로부터 군사를 보내 장차 明나라를 征하려고 먼저 조선을 쳤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 원정의 두 번째 전쟁이다. 豊臣秀吉에게 하늘이 목숨을 조금 더 주었으면 爰新角羅가 明을 쳐서 清國을 세우기 전에 중국이 일본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神功皇后의 삼한정벌은 『日本書紀』에 전하는 전설적인 기사로 한반도에 그 흔적이나 없음으로 현재는 부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풍신수길과 오바랩시켜 조명하는慣行은 이미 江戶 정권 중기부터 나타나 그 말기 정한론이 대두한 때의 논의

해되고 있지만 서양의 자유, 박애, 평등이란 국민주의, 자유주의라는 의미는 완전히 배제된 채 민족주의로 이해됨은 서양이외의 지역에서 심히 왜곡된 용어이다.

24) 이 책은 東京 博聞社에서 1894년 7월 18일 출판되어 7월 20일에 재판이 인쇄되었고, 동년 8월 25일에 3판이 인쇄되었음을 통하여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읽힌 책이었다. 일본국수주의를 부추김에 큰 공헌을 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25) 役에 대한 원래 한자의 의미는 국경의 수비, 또는 그런 일, 병사라는 뜻이었다(諸橋轍次 『大漢和辭典』 및 邊境의 戍守라는 뜻이다. 『中文大辭典』 참조).

26) 이는 범례에서 쓰여진 내용이다.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²⁷⁾ 그러나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설이 현재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부정되고 있지만 대마도의 이즈하라시에 있는 八幡宮神祠의 안내판에는 지금 까지도 그 곳이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복하고 돌아온 첫 귀착지라는 설명문이 벼젓이 쓰여 있어 일반 국민을 교육시키고 있다.²⁸⁾ 이 책은 바로 일본의 대외적 팽창주의를 부추기기 위한 목적에서 임진왜란이 서술되었고, 여기서 秀吉은 萬古의 英雄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은 명군과 일본군의 전투상황을 파악하고자 함에 주력하였다.

이 책의 논리는 勿論 紋述까지도 그대로 계승한 책이 1916년에 帝國軍友會에서 출간된 《通俗日本精史》²⁹⁾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朝鮮役”이란 표현을 “朝鮮征伐”이란 더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를 과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생의 延長圖”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학자들의 실증적 역사학에 대항하여 읽히는 역사를 서술하기 위하여 설화 중심으로 쓴다.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다.³⁰⁾ 이 책은 국수주의적 역사서술이고 또한 영웅중심의 역사서술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획을 긋는 저서로는 池内宏의 《文祿慶長の役》³¹⁾과 參謀本部에서 1924년에 出刊한 《朝鮮の役》을 들 수 있다. 池内宏이 쓴 책 중 正編은 그 전체가 임진왜란의 배경설명인데 그의 역사인식은 영웅주의적 역사관이었다.³²⁾ 즉 豊臣秀吉은 征伐攻略에서 偉大한 功績을 남겼고, 德川家康은 經

27) 北島万次,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に関する學說史的検討>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1990, 15~22쪽. 이 글에 의하면 江戸時代에는 종래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었는데 조선이 최근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다고 역사를 오도하였다. 그러나 北豊山人の 책에서는 이런 사실은 전혀 서술되지 않고, 江戸時代의 豊臣秀吉論을 계승하였으면서도 征韓論의 歷史認識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28) (補註) 이 문장은 추가한 내용이다.

29) 이 책은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진왜란은 상권에 있다. 상권은 服部弘이 집필하였으며, 임란서술부분에서는 장의 제목과 서술에서 北豊山人の 저술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설화적 내용을 약간 추가한 정도이다. 이 책은 여러 명의 전직 대신들이 題字를 쓴 점에서 국민에게 널리 읽힌 정신교육의 교재였다고 생각된다.

30) 이 책의 서문은 関口会 회장이 썼다.

31) 이 책은 正編, 別編, 附編의 三篇으로 되어 있다. 正編은 임진왜란의 전체의 경과를 다루었고, 別編은 여러 부대의 전투상황을 서술하였으며, 附編은 기타 관련 논문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정편의 범례에서 밝히고 있으나 실제 정편은 전체의 경과라기보다는 그 배경설명이라 할 수 있다. 즉 제1장 <豊臣秀吉の對外的態度>, 제2장 <鮮王入朝の命と通信使の來朝>, 제3장 <征明の計劃とその準備>, 제4장 <征鮮遂行の事情>으로 되어 있다. 正編은 19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역사조사실에 편찬하였고, 別編은 1936년에 간행되었으며, 附編은 1977년에 간행되었다.

32) 그는 여러 곳에서 영웅론을 언급하고 있다. 그 한 예를 들면 위의 책, 정편 35쪽 등이다.

國治世에서 拔群의 機能을 發揮했던 偉人이라고 한 표현³³⁾에서 직감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전편에서 풍신수길의 원대한 이상을 밝힘에 주력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戰役은 龍頭蛇尾에 그친 실패한 사업이라고 그는 평가하면서 조선8도는 물론하고 4道도, 1個道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豊臣秀吉의 당초의 의도는 구구하게 조선정복만이 아니라 明나라 400餘州의 석권을 목적으로 하였음은 정설로서 이는 의심할 바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명나라 400여주만이 아니라 소위 天竺 南蠻까지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을 입증하려한 것이다. 그러나 秀吉이 1587년(天正15년) 薩摩의 島津義久의 항복을 쉽게 받고 加須屋武則에게 알린 5월 15일자의 朱印狀이나 6월 초하루 本願寺에 고한 書狀 등의 해석에 심각한 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³⁴⁾

이러한 사료의 무리한 해석은 秀吉의 대외침략을 당시 일제 식민지배의 논리의 선상에서 대륙침략을 위한 제국주의의 팽창논리에 역사적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秀吉이 중국을 정복하려고 하였다는 뜻을 표현하였다라는 이들 자료는 이후의 다른 사람의 저술에서는 인용되지 않고 있다.

그의 역사인식은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를 당연시하고, 영구지배를 획책한 식민론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학문방식이 비록 문헌자료의 실증이라는 면에서 약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역사인식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실증적인 영향력은 부지불식간에 전향적인 후세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역사관은 영웅주의 역사관, 民族主義的 國粹史觀이라 할 수 있다.

이에서 豊臣秀吉은 曠古의 英雄이라고 논하면서 영웅론을 전개하였다.

33) 池内宏, 《文祿慶長の役》 正編 길천홍문관, 1~2쪽.

34) 일본 고문서 판독에 문외한인 본인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할지 모르나 加須屋武則에게 준 朱印狀의 “彼地自大唐南蠻國之船着候間 …”의 구절이나 書狀의 “博多津大唐南蠻高麗自國國船着候間”을 한문식으로 풀이하면 저 땅(筑前國, 博多), 또는 博多津은 大唐, 南蠻, 高麗 各國의 선박과 일본 국내의 여러 나라들의 배가 도착했던 곳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肥後國에서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佐佐成政의 죄를 헤아리는 増田長盛, 石田三成등의 連書狀에 나오는 “唐南蠻國迄可被仰付 …”는 그들의 죄상을 당나라 남만국에까지 알릴 정도로 즉 친하에 알릴 정도의 명백한 죄라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大唐, 南蠻 高麗는 풍신수길과 당시 일본지식인들이 이해한 이전의 친하 개념이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자료를 가지고 이들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은 문리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도 “可被仰付”的 문귀의 뜻이 애매함을 지적하고 있다(14쪽 참조). 본 논문이 발표된 후 북도만차씨는 “可被仰付”的 뜻이 친다는 뜻의 근거로 일본국어사전의 자료를 송부해주었으나 일본고문서 전공자들은 이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 용어에 대한 의미는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35) 앞의 책, 2~3쪽.

그의 別編은 각부대의 동정을 한·일 양국의 자료를 통하여 실증한 저술이어서 일본 학계에서 학문적 업적으로 높이 인정을 받는 고전적 가치를 갖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³⁶⁾ 이 책에서 咸鏡道租稅牒이 조선통치의 자료로 이용되었다.³⁷⁾ 그리고 이에 보이는 그의 역사관이 正編에서 다른 것과는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선상에서 서 있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정편에 보이는 주관적인 서술의 표현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鮮”으로 기술한 점을 지적하여 조선편시관을 보인 것처럼 평가되고 있다.³⁸⁾ 조선편시관은 이뿐만 아니라 함경남도의 義兵을 “騷亂”, “動亂” 등으로 표현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924년에 참모본부에서 『朝鮮의役』을 출간하였다. 1965년에 이 책이 복간될 때에 해설을 쓴 桑田忠親은 豊臣秀吉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적되는 다섯 가지 설³⁹⁾을 비판하고 결론적으로 국내통일을 실현한 과정의 자존심, 일본 국력에 대한 자신이 있어 옹대한 해외경영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서에서는 임나일본부,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을 서술하고, 한국과 중국의 왕조변화 일본과의 관계사를 정리하였으며, 왜구의 피해에 대하여도 서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秀吉의 外征의 원인을 입증하려 하였다.

秀吉이 명나라를 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을 1587년 5월 29일 唐土를 영토로 만들겠다는 뜻을 표명한 부인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고 있고⁴⁰⁾ 이 자료는 이후 일본학계에서 인용되고 있다.

의병의 전투는 어디 戰이라 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육전과 해전을 소상히 소개하였으며, 일본이 패배한 전투도 상세히 소개하였고, 중국과 조선, 일본의 자료를 망라하여 상세히 취급한 점에서 참고되어야 할 책이다. 그러나 이 책 또한 일본이 신공황후 이후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날조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승리하지 못한 것은 諸將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파악하였다.⁴¹⁾

36) 北島万次, 池内宏 著 『文祿慶長の役』付編 解説, 길천홍문관재간, 1986.

37) 그러나 이 문서에 대하여도 심층적인 고문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8) 北島万次の 학설사적인 연구사는 『풍신정권 대외인식 조선침략』 校倉書房, 1990. 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언급은 위 해설 참조 146~147쪽.

39) 참모본부, 『朝鮮の役』, 德間書店, 1965. 監修者の 한 사람인 桑田忠親이 쓴 <朝鮮出兵의原因>, 17~19쪽 참조 이에 의하면 1) 적전신장의 발상에 기초하였다는 說, 2) 3살 먹은 愛兒 鶴松이 죽자 비통하여 출병하였다는 說, 3) 勸合貿易說 4) 자신의 명예욕이었다는 說, 5) 사회경제학자들이 국내의 檢地에 의하여 배제된 무장의 불만을 해소하고, 粟나 博多의 商人们이 포르투갈 상인들의 활동을 억제하여 해상무역권을 독점하기 위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라는 說 등이다.

40) 참모본부 편, 『朝鮮役』, 59~60쪽.

徳富猪一郎는 『近世日本國民史 朝鮮役』 3책을 1920~21년에 진행하였다.⁴²⁾ 이 책의 서문에서 “임진왜란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였다”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 戰役의 목적은 兵力蹂躪이 아니라 平和懷柔였다”고 쓰고, 이어서 “이 전쟁과 외교를 통하여 일본 국민성의 큰 결함을 폭로시켰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임진왜란은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파악하여 16세기 航海遠略의 시대라고 보았으며, 이는 中村榮孝, 北島万次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는 일본학계의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⁴³⁾

徳富猪一郎은 “일본이 섬나라로 有史이래 外國에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不可思議한 일이다. 大和民族인 일본국민이 본래 武勇의 민족이었음을 特筆하지 않을 수 없다. 倭寇는 단순히 海賊專門業의 것이 아니라 국민적 海外발전을 이루었다. 왜구의 기원은 유사 이전부터이며, 無事時에는 무역을 하고 有事時에는 倭寇가 되었다”고 하여 역사의 왜곡을 심히 하고 있다.⁴⁴⁾

이 책은 자료 수집이 조선, 명, 일본, 선교사까지 이른 점과 자료 중심으로 해석을 한 것은 池内宏의 학설을 이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논지도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쟁으로 보고 그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⁴⁵⁾

1. 敵情 偵察의 不充分- 수길은 조선과 명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2. 出征 將士의 人氣를 끌지 못했다.
3. 外征을 상담할 인물이 없었다.
4. 풍신수길은 조선왕만 잡으면 전 국민이 일본군을 환영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은 출정 전에 이미 일본에 복종하고 있다고 秀吉이 속단했음을 지적했다. 그의 역사인식도 적극적인 민족주의의 견지에서 일본국민에게 대외정복에 용기를 주려는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왜구 등을 왜곡서술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이전의 임진왜란 연구의 업적으로 中村榮孝의 「文祿慶長의役」⁴⁶⁾을 들 수 있다. 그의 임진왜란은 “東洋을 一體로 하는一大平和圈을 建設해서 大陸에 皇化를普及하려는 大理想 下에 일으킨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大陸經營의 논리로 임

41) 위의 책, 324쪽.

42) 『근세일본국민사 풍신씨시대편 조선역』으로 1935년에 민우사에서 간행하였다.

43) 北島万次 저, 『壬辰倭亂と秀吉・島津・李舜臣』, 2002. 校倉書房간 序章

44)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時代丁篇』, 民友社, 1935, 9쪽.

45) 같은 책, 306~309쪽.

46) 中村榮孝, <文祿慶長の役> 『大일본전사』 3, 三教書院, 1939.

진왜란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⁷⁾ 특히 그는 日本軍의 軍律이 엄하여 조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했다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軍은 朝鮮 諸道에 行動을 開始하여 이르는 곳마다 官吏의 收容, 庶民의 慰撫, 抗敵의 掃蕩을 행하여 治安回復을 도모하고 收稅를 徵收하고 兵糧을 備蓄하여 征明의 준비에 급급하였고 한편으로는 產業의 開發, 文化工作에도 힘을 써서 銳意 軍政의 徹底를 期하였다”⁴⁸⁾

그 文化工作的 예로는 國語普及運動이란 제목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서술이 문헌자료를 증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는 曲學阿世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69년에 《日鮮關係史의 研究》 중권에서 이런 서술과 표현을 대폭 수정하여 출간하였다.

일본에서는 1945년 이후 국수적 민족주의적 성향에서 탈피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임진왜란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조선과 일본의 사료를 엄정하게 비교하여 이를 함께 이용하는 학자들이 많다.⁴⁹⁾ 그런 구체적인 예로 임진왜란 중 일본군의 손실은 40% 이상에 달하였다던가⁵⁰⁾, 민중생활을 중시하는 被虜人을 연구한다던가⁵¹⁾, 義兵에 의하여 부산, 서울, 평양으로 거점 점령지에의 군량보급에 차질을 빚고, 일본군이 심한 타격을 받고 도망을 쳤다든가,⁵²⁾ 왕릉의 도굴사건, 전사자의 귀나 코를 베어가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豊臣秀吉의 朝鮮 侵略”이란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IV. 앞으로 바람직한 양국의 역사인식

47) 같은 책, 254~255쪽.

48) 같은 책, 294쪽.

49) 이에 대하여는 北島万次의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刊, 1990에 실린 第1章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に關する學說史的檢討> 중 56~61쪽 참조.

50) 貫井正之,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と朝鮮義兵鬪争> 《秀吉・耳塚・四百年-豊臣政權の朝鮮侵略と朝鮮人民の鬭い》, 雄山閣出版, 1998, 11쪽.

51) (補註) 中里紀元, 《秀吉の朝鮮侵攻と民衆・文祿役(壬辰倭亂)-日本民衆の苦惱と朝鮮民衆抵抗-》 上下, 文獻出版, 1993.

52) (補註) 上同, 490쪽

壬辰倭亂은 일본과 조선의 전쟁이었다. 단지 명나라 군대가 후원을 하였을 뿐이다. 임진왜란의 용어는 1945년 이후 한국에서 학술적인 역사용어로 정착되었고, 일본의 학자들도 사용하는 용어⁵³⁾이고, 국제적 학술대회에서도 합의를 본 명칭이다.⁵⁴⁾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용어는 적절한 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倭城”, “倭寇”라는 학술용어가 한·일 양국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일본이란 국가의 명칭이 있는데 “倭”라는 명칭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文祿·慶長의役”, “豊臣秀吉의 朝鮮侵略” 또는 “豊臣政權의 朝鮮侵略”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만약 하나의 전쟁을 대상으로 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를 공동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명칭을 정하여야 한다면壬辰年이라는 干支는 한·중·일 삼국이 다 같이 사용했음으로 “壬辰戰亂” 또는 “壬辰戰爭”으로 칭함이 좋을 듯 하다.

또한 당시의 기록이 일본 측의 기록과 한국 측의 기록에 하루의 차이가 난다. 일본 측의 기록이 한국 측 기록보다 하루가 늦다. 이를 공동연구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당시에 사용된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즉 부산에서 전쟁의 개시 일은 조선 측 책력으로는 4월 14일이고 일본 측 책력으로는 4월 13일이지만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592년 5월 24일이 된다. 양력으로 기술하여야 역사를 읽는 독자들이 기후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역사연구공동위원회에서는 “朝鮮役”이라든지 “征伐”이라든지, “出兵”이라든지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出兵”이란 용어는 조선을 일본의 국내로 파악했던 일제시기의汚染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일본역사 발전의 중요한 역사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갑자기 외침을 당한 전쟁사이기 때문이 비록 그 영향이 크지만 한국사 발전의 중심 문제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에서 임진왜란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임진왜란은 세계사적인 전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문중의 선인을 빛내기 위한 의병의 현창이란 차원을 넘어 전쟁사는 지역사의 중요한 연구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1945년 이전의 역사인식에 따라 일본세력의 팽창으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제시기에는 일본에서 秀吉의 조선침략은 일본식민지 지배에 이용되었다. 또한 전쟁의 원인으로 명나라의 정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서

53) 17편의 논문이 논문제목에서 임진왜란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측 연구사보고서 목록 참조

54) 2000년 8월 영국런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었던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중국의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로 공식명칭을 임진왜란으로 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문한 바가 있으며, 그 학술발표논문집이 곧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술은 한국 측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전쟁의 구실로 삼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진전란을 다루는 시각은 양국 모두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역사로 보려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의 기록은 지배층 중심의 역사로 되어 있는 바 이를 과감히 탈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지적인 전투나 전체적인 전쟁에서도 승리냐 패배를 떠나서 그 실상을 정확히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진왜란의 역사적 실상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전쟁 기록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양측의 기록을 상호 비교 검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이라고 해서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료비판을 거친 위에 이용되어야 한다. 이는 일본 측 자료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문서 자료라고 해서 이를 그대로 인용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고문서 자료는 특수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전체화,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부분을 전체로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즉 과거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역사학 연구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양국은 문헌실증주의의 역사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해석 중심의 역사학으로 한 단계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을 문헌 중심으로 파악하려 할 때에 역사적 이해를 그르치는 실수가 허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일 양국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가주의적 관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기 나라의 역사를美化하려는 민족주의의 역사관을 과감히 버리고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은 어느 국적이던 간에 인간주의적 견지에 동등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가는 항상 내가 속한 나라의 역사를 공정하지 못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끊임없는 반성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유이던 간에 전쟁을 미연에 막으려는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사가 연구되어야 한다. 인간 존중주의적 관점이 전쟁사의 기본 시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이 한 나라의 영향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견지에서 인식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V.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1 전쟁의 발발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의 豊臣秀吉이 조선을 침략함으로써 야기되어 7년간 지속된 전쟁이었다. 명나라 군대가 참전함으로써 국제전이 되었다. 규모면에서 7년간의 전쟁에 참여한 일본, 조선, 명나라 군사는 7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세계사적인 대 전쟁 이었다.秀吉이 분열되었던 戰國 상황을 통일한 후 조선을 대마도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착각하여 대마도주에게 조선국왕의 來朝를 요구했다.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관행을 잘 알고 있는 대마도주는 중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줄타기 외교를 벌였다. 대마도주는 임의로 1587년 국왕사를 파견하여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후 계속 두 차례나 통신사 파견을 간청하였다.

1590년 조선 정부는 통신사를 파견하였으나 일본의 침입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견되었고, 통신사가 함께 온 玄蘇 등은 1개월 후에 입경하여 「假道入明」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방어준비를 명하였으나 민심의 동요를 이유로 이를 곧 중지시켰다.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외교적 대처는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일본의 정세파악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일본이 명을 치겠다고 하는 소식을 명나라에 알리는 것을 놓고 고민했다. 조선이 혹 일본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明으로부터 살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이미 바친 조총에 대해 별 관심을 쏟지 않았다. 선조가 통신사에게 물은 것은 秀吉의 인상에 대한 질문이었을 뿐이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秀吉은 다이묘에게 檢地令을 통한 石高知行제의 실시, 다이묘의 분장을 막기 위한 惣無事制의 실시, 병농분리의 정책을 통해 통치기반을 정리한 후 조선 침략을 획책하였다. 이 무렵 그가 명나라를 치겠다는 공언은 국가적 규모의 군역동원의 구실이었다.⁵⁵⁾ 그러나 그가 명나라를 점령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던 것은 1585년 關白에 취임하였을 때인데 이는 가신단 결속을 위한 것이었다.⁵⁶⁾ 일본에서 명나라 정복의 야심은 織田信長에게도 이미 나타났다.⁵⁷⁾ 이는 급격히 성장한 군사력의 대내적 표출이었다.

16세기 중엽 서양인으로부터 조총과 화약을 수용하였고, 이 新武器는 일본 국내의 통일에 주효했다. 다이묘에 대한 秀吉의 권력은 전제적으로 시행되어 누구도 그에게

55) 北島万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1990, 95쪽

56) 北島万次, 앞의 책 『豊臣秀吉の朝鮮侵略』, 14쪽 참조.

57) 堀新, <信長・秀吉の國家構想と天皇> 池亨編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2003, 122쪽 참조.

반대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고, 반대자에게는 무자비한 처벌이 가해졌다. 秀吉은 천민에서 출세하여 1585년 파격적으로 從1位의 關白에 오르고 다음 해 太政大臣에 올랐으며 곧 太閣이란 새로운 칭호를 가졌다. 천황만이 할 수 있는 禁中에서 茶會를 주최하여 천황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⁵⁸⁾ 그는 태합직을 가지고 일본의 외교와 군사,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의 정치는 전제적이었다. 그의 조카 秀次에게 關白의 자리를 넘기었고, 이는 秀吉의 명령을 따르는 로봇트에 불과했다.⁵⁹⁾

秀吉은 다이묘에 명하여 1591년 10월에 나고야(名護屋)에 출정성을 쌓고 정집령을 내려 9개부대 15만 8000명⁶⁰⁾을 조선 침략에 동원하였다. 전쟁의 명분은 명나라를 치겠으니 길을 벌려달라는 것이지만 이는 단지 구실에 불과했다. 전쟁을 일으킨 동기에 대하여는 한국학계에서는 다이묘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설이 있으나⁶¹⁾ 이후 별다른 연구가 진척되지 않고 이를 정설처럼 파악하고 있다. 한우근은 일본 측의 원인론으로 크게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⁶²⁾ 그러나 이 여섯 가지가 시기적으로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秀吉이 조선을 침략한 원인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가 唐과 天竺(인도)을 치겠다는 것은 唐은 한자와 유교문명의 중심지이고, 천축은 불교의 발상지였다. 그가 천축까지를 정복하겠다는 표현은 외교문서 작성을 의뢰한 승려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秀吉이 천하라고 칭한 것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즉 하나는 자기나라 전체의 통일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라는 뜻이 있다.⁶³⁾ 자기나라를 천하로 인식하는 것은 고대적인 발상이다. 한국에서도

58) 상동, 115쪽.

59) 北島万次, 앞의 책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351~363쪽 참조.

60) 한국 측에서는 종래 20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했다. 이는 으나 이는 정확한 파악이 아니다. 초기에 투입된 군대는 13만 7천200명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간 『한국사』 12, 1978, 284쪽 참조. 후일 후방 후원부대로 후속부대인 9번대와 10번대의 1만 800명이 투입되었다.

61) 한우근, <임진란 원인에 관한 검토-풍신수길의 전쟁도발 원인에 대하여> 『역사학보』 1, 1952 참조.

62) 위 논문. 이에는 1) 풍신수길이 전쟁왕이었다는 탐병설, 내지는 개인적 공명심 2) 영지를 주지 못한 다이묘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 3) 풍신수길의 정복욕 이었다는 설 4) 영토확장설 5) 명나라와 갑합무역의 재개를 위해서였다는 설 6) 대륙을 지배하겠다는 정복설로 정리하고 있다. 이후 일본에서의 임진왜란 연구 성과를 정리한 연구집적으로는 김문자의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변천> 『역사비평』 46, 1999에 소개되었다.

63) 일본의 국내통일을 천하의 통일로 표현함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구체적인 내용 서술에서는 ‘전국의 통일’이라고 서술하면서 책 제목은 『天下統一と朝鮮侵略』(吉川弘文館, 2003)으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고구려나 백제, 신라 삼국에서 각각 자기나라를 천하라고 생각하였다.⁶⁴⁾ 이런 고대적 인 발상은 고려조 초기까지 지속되었다.⁶⁵⁾ 그러나 12세기 이후 송나라와 금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들의 견문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천하라고 칭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고려인들은 천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 나라를 천하라고 칭하는 것은 고대적인 유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의 반대를 위해서 秀吉이 「일본은 神國」이라는 생각한 것과 五山 승려들에 의하여 주장된 신국론도 고대적인 유제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는 천제의 후손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 천제신인 시조와 시조비인 闕英의 상징우地神을 중앙하던 神宮이 설립되어 국가적으로 중앙되어 오다가 9세기 경 당 나라의 종묘제도가 도입되어 신궁은 쇠퇴하였다. 삼국의 시조가 천제의 후손이었다는 왕실의 신성성은 합리적 유교문화의 진전으로 고려조에 극복되었으나 12세기에 李奎報에 의하여 쓰여진 「東明王篇」이나 13세기까지 승려 一然 禪師가 쓴『三國遺事』등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⁶⁶⁾

秀吉도 일본 국내외에 당나라와 천축이라는 문화적 선진국이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를 천하로 지칭함에서 문자 그대로 천하 즉 전세계를 통일하려면 유불의 근원지인 당나라와 천축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1592년 조선의 침략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표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명나라의 영토와 인구가 얼마인지, 천축 국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몰랐다. 秀吉은 일본 국내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는 다음의 공격목표를 선언하고 스스로의 항복을 유도했다. 이 수법이 유구국과 조선에게도 적용한 것이고, 명나라와 천축을 치겠다는 망상을 한 것이다. 그가 진정 명나라를 정복하고자 했으면 그 정보를 사전에 발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발설하였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의 공격에서 평양을 점령하고 함경도까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성공하자 명나라 정복과 그 후의 분할 구상이 이루어진 것이다.⁶⁷⁾

따라서 秀吉이 명나라를 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조선침략을 명나라를 공략하려는 한 단계라던가 조선과의 전쟁이 아니라 명과의 전쟁이었다고 인식함⁶⁸⁾은 참된

64) 노태돈,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韓國史論』 서울대, 1988 참조

65) '大赦天下'라는 표현이 고려조의 實錄에 쓰여 있었는데 고려사 편찬과정에서 이는 '大赦 境內'로 고쳐져 서술되었음을 세종실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구복, 『한국중세사 학사』 II, 경인문화사, 2002, 42쪽 참조.

66) 鄭求福, 『韓國中世史學史』 I, 집문당, 1999, 78~82쪽.

67) 北島万次, 앞의 책,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95쪽 참조.

68) 池内宏이 그 대표적인 학자이고 그 영향은 그 제자인 北島万次에게도 강하게 나타나고

역사적 이해라고 할 수 없다. 일본 국내의 토지를 받지 못한 무사들의 영지를 줌으로서 그 불평을 해소하려고 조선을 침략했다는 동기설도 타당하지 않으며, 한국 측에서 서술하고 있는 다이묘들의 세력을 전장으로 몰아 그들의 힘을 없애려 하였다는 설도 타당하지 않다. 감합무역을 재개하려 하였다는 설도 1593년 명나라와의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영토를 확장하려 했다는 설도 강화회담 중 한국의 남부 4도 분할론에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조선침략의 동기라고 할 수 없다.

秀吉은 미천한 신분에서 출세하여 전쟁의 승리를 계속하였고, 그는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죽었다. 그는 전쟁으로 일생을 산 사람이다. 그가 조선을 침략한 참된 동기는 그칠 줄 모르는 그의 전쟁욕이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는 전쟁을 선두에서 직접 지휘하여 싸운 것도 아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여의치 않자 직접 건너오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4차례나 연기하고 끝내 건너오지 않았다. 德川家康과 자기 노모의 만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국내의 정치를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는 출정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총대장을 임명하지도 않았다. 이는 군권의 집중을 염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가 각 장수들의 작전을 직접 총지휘하였다. 자기의 명에 의하여 장수들이 싸우는 것을 스스로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싸우는 군사들의 고통을 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그를 직접 만났던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에서 평한 것을 보면 秀吉은 민첩하고, 교활하며,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분명한 것은 秀吉이 조선을 대마도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쯤으로 경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조선침략은 대마도주의 잘못된 정보제공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일본의 성을 공격할 때에 미리 목표를 공표하면 벌벌 떨고 그에 응할 줄로 판단했고, 조선도 일본처럼 한 성이 함락하면 그 지방이 완전 복속할 것으로 착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있다. 이는 北島万次의 앞의 책, 『豊臣秀吉の朝鮮侵略』, 4~15章 및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 朝鮮侵略』 제2장 <豊臣政權と東亞細亞世界> 참조.

2. 전쟁의 경과

전쟁 초기는 육지 전투에서 대규모의 일본군의 공격에 조선군은 전쟁다운 전쟁을 하지 못하고 참패를 했다. 그 이유는 그런 대규모의 침략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쟁을 모르는 평화가 오랜 동안 지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민이 산으로 피난을 간 것을 청야작전을 썼다고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대처였지 정책적으로 이 작전을 썼다고 할 수 없다.

음력 4월 14일(양력5월 23일)⁶⁹⁾ 부산진이 함락됨과 더불어 조선군은 자연의 지형 조건을 살려 방어를 하지 못했다. 烏嶺이라던지 한강과 같은 요새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전쟁이 빨발했을 때 일본은 전쟁에 익숙한 군인에 비하여 조선은 장수들이 문관들이었고, 중앙에 상비군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일본군은 조총이란 서양식의 소총을 휴대하였고, 조선군은 활을 개인 무기로 활용하여 접근전에서는 일본군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조선군도 성을 지키기에 필요한 총통류의 대포가 있었다. 무기의 우열보다는 전의가 더 문제였다. 조선의 군사 지휘관이 문관인 지방 수령들이었고, 이들은 지역을 방어하기 보다는 도망을 쳤다. 성안의 창고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산으로 피난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농사를 짓지 못하여 다음해 계사년(1593) 극심한 식량의 궁핍과 더불어 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인민이 죽었다.

선조는 4월 30일(양력 6월 9일) 수도를 버리고 파천을 단행하였고, 일본군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진격하여 5월 3일(양력 6월 12일)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다. 5월 13일 경 加藤清正과 小西行長은 서울을 출발하여 14일 임진강을 건너 강원도, 개성으로 진격을 하였다. 이 무렵 조선 각도에서 거둬들일 조세라고 하는 문서가 있다.⁷⁰⁾ 이는 앞으로 장수들이 거둬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지역인 평안도와 함경도 전라도, 강원도 등의 조세량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加藤清正과 小西行長이 함경도와 평안도를 담당했는데 함경도가 207만1086석이

69) 일본의 달력으로는 4월 12일이다. 음력에 하루의 차이가 있다.

70)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52~53쪽. 이문서의 명칭은 “高麗國八州之石納覺之事”로 되어 있고, 1952년 秀吉이 加藤清正에게 5월 16일자로 부쳐 지시 내용에 따라 병량을 조달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도별로 당당 장수와 석수가 기록되었는데 총819만 6186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각도의 합계는 1191만 6166석이다. 합계가 이처럼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일본측에서는 아직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실제의 조세량이 아니라 목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 평안도가 179만4186석으로 엄청나게 많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 군대는 음 5월7일(양력 6월 16일) 이순신이 옥포 해전에서 일본군을 최초로 격파하여 전승을 거두어 일본군의 전라도 진입을 저지했고, 이 승리는 조선군에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음 6월13일(양력 7월 21일) 일본군은 평양성을 점령하고 加藤清正과 蟠島直茂는 파죽지세로 함경도 지방을 점령하고 근왕병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은 臨海君과 順和君 두 왕자를 체포하였다. 음력 8월말 경 두만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런 승승장구의 일본군은 예상치 못했던 義兵에 의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즉 4월 20일(양력 5월30일)의 전라도 순창에서 일의킨 爾澎老,⁷¹⁾ 4월 22일(양력 6월1일)에 꽉재우가 경상도 의령에서 일으킨 의병을 시작으로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등 여러 道의 각 지에서 의병의 반격을 받았다. 의병의 대체적인 규모는 1000명 내외였고, 7년간의 전쟁 중 조직된 의병의 수는 26,00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다.⁷²⁾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을 전방과 후방지역에서 반격하였다. 의병은 향토의 지리에 밝아 지형지물을 자리 이용하고 유격적을 별립으로써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의병은 일본군의 전선을 중간에서 차단하였고, 그 결과 일본군은 군량의 궁핍을 심각하게 느꼈고, 이를 현지서 약탈로 조달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순신 수군의 일방적 승리 또한 해로를 통한 군량의 수송을 차단하였다. 명군의 내원 또한 일본군의 침입을 저지하는 큰 힘이 되었다. 명군이 내원한 이유는 일본군의 침입을 조선에서 막아 자기 나라를 일본군이 침략하는 피해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에 있었다. 조승훈이 5,000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탈환하려다가 패배하여 돌아갔고, 이여송이 4만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1593년 1월에 탈환한 후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여 그 후 전의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1592년 음력 8월 27-8일의 연안전투에서 6000명의 일본군의 침입을 패퇴시켰고, 1593년의 2월의 서울 근교인 행주성 전투에서의 일본군의 패퇴는 일본군이 4월에 서울에서 철수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일본군이 서울에서 패퇴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혹독한 추위와 기아, 전사로 인하여 군사의 3-4할이 손실을 입었고, 군량의 궁핍 현상, 일본군의 厥戰의식의 고조, 서울 백성의 불의의 공격에 대한 염려 등이 주 원인이었다. 철수의 명분으로 명나라 측과 강화회담을 열기도 하였다. 또한 1592년 7월경에 전라도로 진격하던 일본군을 꽉재우와 권율이 이치와 금산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10월초의 진주성 전투에서

71) 趙湧來,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9쪽

72) 이 숫자는 송정현의 <임란의 빌발과 경과> 『한국사』 29, 1995, 국사편찬위원회의 44~45쪽의 표 2에서 필자가 합산한 숫자이다. 이는 관군의 4분지 1이 넘었다.

김시민 장군이 일본군 3만의 공격을 폐퇴시킨 것은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의 승리와 함께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라도는 조선군의 군량의 보고로 이용되었다.

3. 강화회담

임진왜란 중의 강화회담은 대단히 복잡함으로 이를 모두 소개할 수 없고 그 개요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군은 침입 초기부터 和・戰 양면 작전을 구사하였다. 최초의 강화 교섭은 일본과 조선측에서 시도되었으나 일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하는 조선측과 명을 치기 위한 가도를 허용해달라는 완전히 대립되는 주장 속에 강화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평양성에서 명나라의 심유경과 일본의 小西行長 사이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면서 양국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조선의 할지론을 주장하는 加藤清正是 명측의 교섭대상에서 배제되어 일본측의 小西行長과 명측의 沈惟敬 사이에 이루어졌다. 小西行長은 1593년 5월 나고야에 돌아와 秀吉로부터 7개조항의 교섭안을 직접 받았고, 심유경도 동행하여 수길을 만났다. 그러나 조선에서 두 사람의 강화회담이 진행되면서 서로 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의에 의한 기만적 교섭이 이루어졌다. 小西行長은 명군을 철수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고, 심유경은 일본군의 완전 철수에 목적이 있었는데 양측은 일본국왕의 항복문서를 바칠 것, 秀吉를 일본국왕에 책봉한다는 내용과 일본측에서는 封貢의 허락, 명나라 황제의 딸을 풍신수길에게 시집보낼 것 등이 주장되었다. 양측에서 본국에 알리기 난처한 문제는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小西行長은 항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명나라 황제를 만나는 사신을 파견하였고, 심유경은 일본국왕사를 책봉하는 사신을 명 측에서 파견하도록 하였다. 책봉사의 정사인 李宗誠이 일본진영에서 강화회담의 내용에 속임 수가 있음을 알고 탈출하여 정사의 임무를 포기하였다. 일본에 간 심유경은 환대는 커녕 홀대를 받고 돌아왔다. 그 결과 심유경은 사형에 처해졌으나 사기 행각을 벌인 小西行長은 다시 싸워 속인 죄과를 갚으라는 조처가 내려졌다.

강화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울진의 서생포 전투에서 加藤清正 군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전투가 진행되었고, 秀吉은 일본군이 1차 진주성의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도륙을 명했다. 1593년 6월에 일본 전군인 9만여명이 총동원되어 공격하여 성안의 모든 사람을 도륙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명군의 작전상의 비협조와 전투 참여 방해로 인근의 조선 지원군이 방관하여 합락되었다. 이 진주성 전투의 잔학성은 일본군이 두

왕릉을 도굴한 사건과 함께 조선 국왕 선조와 조선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군에 대한 심한 적개심을 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강화회담으로 인해 1594~6년간 전쟁은 소강상태로 휴전 중이었다. 1596년 일본군은 남해안 가에 18개소에 성을 쌓고 일부 군대를 잔류한 채 거의 철수하고 명군도 1만6천명을 남겨놓고 본국에 철수 하였다.

4. 정유재란

일본 나고야에 간 심유경 등의 강화가 결렬되자 秀吉은 재침을 시도하여 1597년 1월 15일 14만여 군대를 동원하여 재침을 시도하였다. 이제 명나라를 치겠다는 명분은 없어지고 전라도 지역을 점령하려는 작전으로 바뀌었다. 명나라에서도 즉각적인 파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군에서 패배하고, 조·명 연합군에 의해 9월 5일 직산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하면서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해안가로 후퇴하였다. 9월 10일 명량에서 이순신이 일본군의 침공을 격파하였다. 정유재란에서 일본군의 작전과 전략이 바뀌었다. 1차 침입에서 각 지휘관이 개별 진격을 하던 것과는 달리 합동작전을 펼쳤는바 이는 전라도의 자리에 대한 정보가 일본군에 전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 이었다고 생각한다. 1597년 11월경에는 일본군은 朝·明 연합군에 밀리어 남해안 일대에 왜성에 겨우 움츠리고 있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秀吉은 1598년 8월 18일 죽었다. 그 회군 명령이 전달 된 것은 9월 중으로 추정된다.⁷³⁾ 그가 죽지 않았어도 일본군은 이미 전쟁에서 패퇴하고 있었다.

5. 전쟁의 성격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은 구체제의 잔재와 士林派 내부의 정쟁(政爭)에서 야기된 갈등과 사회경제적 난맥상이 맞물리면서 총체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었다. 여기에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어 사회 전반에 전쟁에 대한 무감각이 더해지면서 '위기의 상황'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 후반 무렵은

73) 秀吉의 사후문제를 다루는 5대신이 가등청정에게 철군을 명한 문서가 9월 5일에 작성되었 다(德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己篇 朝鮮役』 下卷 明治書院, 1935, 673~674쪽). 10월 초부터 小西行長은 명나라 장수 劉綯에게 탈출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였다.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시기였다. 더욱이 조선은 1589년 기축옥사 이후 왕권과 신권의 미묘한 긴장 속에서 당파 사이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조정은 당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정세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동아시아 해역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세력이 조총과 선교사를 앞세우고 진출해 오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과 일본, 중국과 남미 사이의 중개무역을 주도하면서 동아시아의 정세 변동에 촉매 역할을 했다. 조총과 무역으로 상징되는 서양세력과의 접촉은 일본의 군사력과 부를 증대시켰고, 秀吉의 대륙정벌 망상 역시 그 기반 위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명은 그 무렵 장거정의 개혁정치로 말미암은 잠시 동안의 ‘중흥’ 기운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경제적으로 난맥상에 휘말리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임진왜란의 발생을 계기로 조·명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명군이 조선에 직접 참전했고, 그들의 군량은 초기 직접 조달하기도 했지만 조선에서 담당해야 했고, 조선군대의 작전지휘권마저 제한되기도 했다.

지리상의 발견으로 알려진 서양인의 동양진출은 세계적인 무역루트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한 조총의 전래는 일본이 전국시대를 마감하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다. 즉 秀吉은 일본 국내를 통일하고 太閤檢地令, 石高知行制, 刀狩令, 도량형 통일, 懿無事令, 병농분리 등의 법제와 정책의 실시로 국력의 집중을 극대화와 豊臣秀吉의 전제권을 확립하였다. 더구나 그의 무자비한 전제적 성격은 大名들이 그의 어떤 명령도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임진왜란은 장기간에 걸친 국제전쟁이었다. 조선, 명, 일본군 외에도 태국, 유구국, 스페인, 포르투갈인이 참여한 국제전이었고, 참전한 군사의 규모에서도 세계사적인 전쟁이었다. 일본군은 육전에서는 승승장구했으나 해전에서는 거의 완전 참패를 면하지 못하였다. 총체적으로 전쟁의 결과는 승리한 국가도 패배한 국가도 없는 전쟁이 되었다.

양국의 군령체계는 당시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 조선의 군령은 국왕, 4도도체찰사, 도원수, 각부대 지휘관 순으로 행하여졌고, 특히 작전지휘는 도원수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작전지휘에 특히 명나라 장군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秀吉이 직접 각 장군에게 군령을 내렸고 작전지휘는 각 장군 등이 맡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여러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일원적 체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일본의 출정군의 총대장이 宇喜多秀家라고 하지만 그에게 각 부대장을 통솔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단지 그는 한 번 있었던 서울에서의 전장군의

회의를 주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은 방화와 파괴, 질병을 가져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 조선 측이었다. 물론 일본군과 명나라측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조선 측이었다. 일본군은 풍신수길이 엄격한 군률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여 민중에게 피해가 없는 듯이 파악하고 있는 논문도 있으나⁷⁴⁾ 이는 초기의 문서상에 나오는 표현이고, 피난간 조선 백성을 회유하려는 목적에 나온 것일 뿐이다. 일본군은 왕릉의 도굴은 물론 민가에 약탈, 살인, 방화, 도륙, 강간, 포로 등을 자행했음이 조선측 일기 자료 등에 생생하게 보이고 있다. 명나라군대 또한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일본군은 전후 두 차례에 걸쳐 30만에 가까운 군대가 참여하였고, 명나라군대 또한 10만명 이상, 조선 군대가 수십만이 참여한 큰 전쟁이었다.

1592년 양력 5월의 전쟁에서 조선 측은 청야작전을 써서 피난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 해 계사년과 갑오년에는 극심한 흉년과 질병이 만연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즐비하였던 참상이 벌여졌다.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람 고기를 먹는 끔찍한 참상이 일어났다. 일본 군대 중 전쟁과 추위에 고통을 받아 조선에 투항한 자는 1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전사자가 절반인 5~6만명으로 추산된다.. 임진왜란 중 일본에 잡혀 간 간 조선인은 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항해를 통해서 총포의 기술, 군사기술의 전습, 전투에 투입 등 전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관직을 주어 포상하였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문화약탈전쟁’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까지도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왜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점에서 ‘국가적 규모의 倭寇’라고 볼 수 있다.

6. 전후의 처리와 전쟁의 영향

主戰場이 된 조선의 피해가 가장 막심했다.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이 소실되었고, 민심이 이반되어 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1592~3년의 피난으로 인하여 농토가 폐허가 되어 1593년과 다음 해에 심각한 기근과 전염병의 만연으로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죽어 시체가 즐비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다. 전란으로 150만결의 토지가 50만 결로 줄어들었다. 전후 복구책으로 군영의 신설, 조세제도의 개혁 등이 있었다. 이런 전후 복구책은 향후 수십년간 지속되었다. 한편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미증유의 대이동을 한 결과 노비들이 도망을 쳐서 노비의 급감을 가져왔다. 이는 양반들이 노비

74) 中村榮孝, <占領地の軍政> 『日鮮關係史の研究』 中, 吉川弘文館, 1969, 127~137쪽.

의 이동을 공동으로 막던 체제의 와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에 잡혀간 7만 여명의 조선 포로는 이탈리아 등에 노비로 팔려가기도 하였고, 일본에서 노비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환심을 사려던 대마도주의 포로 송환과 개인적인 탈출 1604년 대마도에 갔던 사명대사 유정이 경도에 가서 포로로 억류된 1,391명의 송환 등으로 59회에 총 7,300여명이 송환되었다.⁷⁵⁾ 이해 비해 일본인의 송환은 거의 없었다. 천주교 신부와 신자가 일본군을 동행하여 조선에 왔지만 조선에 천주교를 전래시키지 못한 것은 전란 중의 일본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삼국의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이루어졌다.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담배와 고추 등의 새로운 작물이 전래하였고, 일본에는 조선으로부터 도자기 문화 발달, 인쇄술과 유학이 전래되었다.

전쟁으로 재정과 군사적 손실을 입은 명나라는 새로이 만주에서 일어난 누루하치에 의하여 나라를 멸망되어 명·청이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나라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침입을 당하였다. 청나라의 중원 점령은 조선사회가 더욱 철저하게 성리학의 명분론에 경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이후 300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니 가장 피해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풍신수길의 체제가 붕괴되고 덕천막부에 실권을 빼앗겼다. 덕천막부는 조선과의 친선정책을 추구하여 통신사가 서로 오가는 평화관계가 200여년 지속되었다. 임진왜란은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는 무모한 전쟁이었다. 전쟁은 방화, 도륙, 강간, 포로, 전쟁에 동원 및 부역 등 한·중·일 삼국의 민중생활을 고달프고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 전쟁광인 豊臣秀吉이 일으킨 전쟁의 참화를 누구도 보상할 수 없다. 그를 전제권력을 장악한 秀吉을 국민적 영웅으로 보는 시각은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VII. 맷음말

임진왜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은 근대 역사학이 시작된 후 크게 달랐다. 양측 모두 민족주의 역사학 때문에 국민의식 만들기에 급급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근대역사학을 순조롭게 연구할 수 있었던 일본의 경우 19세기말 이후 1945년까지 50여 년간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의식 양양의 자료로

75) 米谷均, <17세기 日·朝關係에서의 朝鮮被虜人の 送還>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0, 331~334쪽 <표 1> 참조.

이용되어 왔다. 이런 연구성향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되어 연구되고 있다.

물론 이런 1945년 이전의 역사학으로부터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학자가 있지만 일본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이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은 학자가 있으며 더구나 현실을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의 역사인식 속에는 일제하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과거에 행해진 역사연구는 오랜 전에 자신들이 교육받은 것으로 인하여 현재 사람들의 의식 중에 그 영향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현재의 역사학자들의 연구성과보다는 자신들이 배웠던 과거의 역사적 지식이 더욱 강한 역사의식으로 작용한다. 신사에 붙여진 설명문은 일본국민의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예컨대 대마도 이즈하라 시의 八幡宮神祠의 안내문에는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복하고 돌아온 첫 귀착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공황후의 기사는 가공적 것임이 현재 역사학자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지만 일본서기의 설화적 내용은 아직도 일본사람들의 사회교육자료로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일본의 국가적 발전을 위하여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은폐함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제2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전진한 역사관에 기초를 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없는 단점도 있지만 외국에 관련된 문제는 극히 상대국에 혐오를 주는 표현은 절제된다. 일본의 경우 겸인정이기 때문에 외국에 혐오를 주는 자국 중심의 표현을 절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역사연구공동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바로 일본의 국익을 강조하는 우경화의 경향 속에 집필된 일본측 교과서의 문제에서 별단이 되었다.

특히 임진전란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서술 중 일제시대 조선을 점령한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여 사용하였던 ‘出兵’이란 표현이나 조선왕조를 “李朝”라고 표현함은 잘못된 것이다. 해전은 물론 의병의 투쟁도 서술에서 정당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국민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민족주의 역사관은 전쟁을 막아 무고한 인민이 그 재난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하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역사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역사를 자국의 국민의식을 강화하려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함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자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토론 녹취문

- 주 제 :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
- 발표자 : 정구복 위원
- 일 시 : 2003. 6. 14(10:20-12:20)
- 장 소 : 대마도 이즈하라문화회관
- 참석자
 - 한국측 : 손승철, 정구복, 조광, 한문종, 박재광, 장순순
 - 일본측 : 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豊, 北島万次, 米谷均, 橋本雄, 伊藤幸司

토론문

吉田：먼저, 토론 방법인데요,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만입니까, 아니면 여기 원고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 검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손승철：이 논문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은 내년 3월까진가 5월까지 해서, 토론을 보완하여 논문을 완성하기로 했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하지요.

田代：일본측은 여기에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읽어보고 각자의 의견을, 반론이라든가, 의견을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吉田：됐습니까. 저기, 세세한 부분과 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큰 부분부터 들어가 볼까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일본측에서는 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요, 저기, 일본의 연구자에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들어가 보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記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六反田：얘기해도 됩니다. 저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壬辰倭亂, 文祿·慶長의役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셔서, 금후에 이 연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提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신 이야기나 혹은 쓰신 것만을 읽기만 해서는, 조금 목적이라고 할까 그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처음의 한국어판에서는, 오늘 배포해주신 것에서는 2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신 연구내용에 왜 個別論文이 아니라 單行本만을 취급하셨는가, 단행본만에 한정했는가 하는 이유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신 일본에서의 연구는 왜 194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의 것은 1980년까지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양국의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인식을 비교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2페이지에서는 그 「양자의 인식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비교 대상이 조금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혹시 거기에 뭔가 선생님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그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세 번째는 그러한 비교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연구는 1945년까지며 한국의 연구는 80년이라는, 비교하는 대상이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선생님은 양국의 王辰倭亂, 文祿·慶長의役에 대한 歷史認識을 비교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비교할 때 대상이 어긋나고 있으며,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연대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뭘가 선생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 논문을 읽어보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구복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六反田 선생님께서 왜 單行本에 대한 연구만을 하고 論文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연구는 국민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에는 계속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본인이 발표에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일제시대 일본의 연구는 1945년까지를 주로 다루었고, 한국에서는 1980년까지를 주로 다룬 이유는, 한국에서는 1945년까지를 동일시기를 디를 때에는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945년까지 한국은 日帝의 植民支配下에 있어서 한국사를 연구할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獨立運動으로 간주되어 해외에서 도피하여 연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1937년 지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한국사의 양심적인 연구자들은 역사 연구에서 손을 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양심적인 논문을 발표할 수도 없었던 부자유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측과 싸운 임진왜란을 한국 사람의 견해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임진왜란을 포함해서 한국사 연구의 전반적인 근대적인 연구는 1945년 이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1945년까지의 연구 성향과 한국에서의 1980년대까지의 연구 성향은 비록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民族主義의인 歷史觀에 기초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六反田 : 감사합니다. 확실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의 연구가 1945년 이전에 있어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할까, 아주 어려운 조건에 처해져 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은 아마 이 글안에서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측의 연구는 194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에 대해, 단지 조금 저에게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라고 할까, 여기서도 쓰셨습니다만, 1945년 이전의 일본은 帝國主義의 時代에 있어서, 또한 일본에서는 그러한 가운데 뭐라고 할까, 近代科學으로서의 역사학에 있어서 文祿·慶長의 役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물론 1945년 이전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에 더욱, 戰前의 연구를 극복하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러한 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해 주신 후에, 비교를 해주시는 게, 더 연구 현황에 의거하여 연구를 확실하게 보는, 뭐라고 할까요, 연구사의 정리,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찾아갈 때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1945년 이전만을 취급해서, 뭐 현재 일본의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복 :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논문에서는 주로 1945년 이전의 연구 성과를 다루었습니다만, 해방 이후의 전형적인 발전적이고 반성적인 역사학, 즉 北島先生이 쓴 역사책 그 세 권을 제가 다 통독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北島先生의 『豊臣秀吉의 朝鮮侵略』이라고 하는 책은 현재 한국 사람들의 연구 성향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거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상당히 공정한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일본에서 朝鮮役이나 또는 文祿·慶長의 役이라고 칭하는 데에서 豊臣政權의 朝鮮侵略, 또는 豊臣秀吉의 朝鮮侵略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 국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北島先生의 이런 역사 인식이 국민 인식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 北島先生의 설을 추종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한일역사연구공동위원회가 성립된 것은 일본에서 戰前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쓴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1945년 이전의 것을 다뤘지만, 1945년 이후에도 그 이전의 역사연구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쓴 사람의 연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한국어판의 13페이지. 그 하단부분에서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六反田：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지금 그 13페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확실히 여기에 45년 이후의 연구에 대해 열거했는데, 주 48번은 괜찮은데요, 그 뒤의 「민중생활 중시하는 被虜人の 연구라든가」, 이것은 구체적인 연구가 있을텐데요, 註에도 소개하지 않으셔서요, 혹시 논문을 쓰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연구가 있는지 주를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후 그, 논문을 발표하실 때 註釋에 어떤 연구가 있는지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복： 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만은 본 연구는 연구 사적인 전체적인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앞에 얘기한 일제시대의 민족주의적 역사관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吉田： 저, 그 외에도 이야기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 기로 하고,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이름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北島선생님, 뭔가 의견이.... 저, 정구복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이름이 몇 번 언급된 北島선생님으로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北島： 지금 보고를 들고요, 뭐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의견인데요, 7가지 정도 있는데요. 시간이... 하나는 壬辰倭亂이랄까, 선생님의 호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칠판 쓰면 좋겠네요. 저기, 石原道博라는 사람이 있어서 文祿·慶長의役라는 책, 발간 연도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제 책에는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대체 이 호칭의 문제, 이것을 요컨대 朝鮮戰爭이라든가, 조선전쟁에서 文祿·慶長의役으로 왜 바꿨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요컨대, 저, 한국의, 한국에서도,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조선인도 일본인이 되었으니까 그 정별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는 것이 되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石原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池內선생님이 文祿·慶長의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풍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 文祿·慶長의役이 일반적이 되었기 때문에 池內선생님은 그렇게 명명했다고 생각합니다.

田代： 그것은 연구사에 이미 써 있으니까...그것은 좀....

北島：네, 알겠습니다.

吉田：橋本씨가 그것은 연구사에서 명확히 쓰셨습니다.

橋本：그것은 北島선생님이 쓰신 건데요.

北島：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의 문제. 池內씨의 이해 방법입니다. 池內씨의 기술은 일본어판에선 5페이지고, 오늘 배포된 것에서는 일본어판 5페이지입니다. 한국어판은 몇 페이지입니까. 네 일본어판 5페이지 아래쪽, 네 7페이지에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본어판에서는 「저들은 古來로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었음을 과시함으로써 한말 이후 이 땅을 불법 지배하여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만주철도회사 조사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池內宏의『文祿慶長의 役』을 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일본어판 8페이지, 한국어판에서는, 「壬辰倭亂 研究에 學問의으로 重要한 劃을 긋는 저서로는 池內宏의『文祿慶長の役』과 參謀本部에서 나온『朝鮮の役』이라는 저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池內씨에 대하여 「正編은 전체가 임진왜란의 배경설명인데 그 역사인식은 영웅주의적 역사관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본어판에서는 9페이지 4번째 줄인데요, 「그의 역사인식은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를 당연시하고, 영구지배를 획책한 식민론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고...

吉田：한국어판 11페이지 제2 단락입니다.

北島：「그의 학문방법은 비록 문헌자료의 실증이라는 면에서 약간 기여한 점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의 역사인식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고 이렇게 써 있는 문제. 여기는 좀 저랑 의견이 다릅니다. 이 부분 전체가... 하나는 池內씨는 朝鮮征伐이 아니었다는 것을 논증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학설론에서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 그 이전에 동경대에서 辻善之助, 田中義成라는 이 사람들은 문헌목록에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학문에 있어서 조선정벌을 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秀吉이 명나라와의 무역을 재개하려고 해서 그것을 조선에 알선한 바, 의뢰한 바 조선이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조선을 정벌하였다는데, 이것이 그때까지의 朝鮮征伐史觀의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池内씨는 그렇지 않다고, 명나라 정복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 데에 포인트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橋本：전체로서 미리 배포된 연구사에 관한 辻善之助부터 池内宏까지의 전개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吉田：이것은 전체로써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橋本：그래도 다시 한번.

田代：역사적인 사실과, 누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연구사에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北島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연구사에 다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읽으면 池内씨의 주장이 그 전의 주장과 어떤 식으로 다른지 써 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지요.

北島：네, 그 다음. 일본어판 9페이지 가운데쯤의 「『文祿慶長の役』의 별편은」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한국어판 11페이지. 咸慶道 租稅牒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에 보이는 池内의 역사관은 정편에서 다른 것과는 언뜻보면 다른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선상에서 서 있다」라는 식으로 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보다 전에, 그 『弘安·文祿征戰偉績』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芝葛盛이라는 사람은, 이 咸慶道 租稅牒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는 文祿·慶長의役, 壬辰倭亂이라고 일본측에서 정리한 것이 있지요. 이것의 6페이지에 芝葛盛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吉田：그것을 읽으라는 것입니까.

北島：아니 읽어달라는 게 아니고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일본군은 조선을 공격해서, 그리고 토지를 정비하고 조세제도를 정비하였다고.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일러전쟁으로 가는 일본의 군인아저씨들도 이것을 확실히 기억해서 과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과거의 업적을 배워 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芝葛盛이라는 사람은 저, 토

지를 조사하고 지배하고 조세를 거둔다. 그것을 했다. 그래서 훌륭한 일이었다고. 그런데 池內선생님은 같은 자료를 써서 그 수탈정책의, 수탈의 실태를 밝혔다. 그래서 그것은, 그 池內씨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 식민지주의적인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부정해서 그 실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池內씨는 이해가 다릅니다.

네, 다음, 괜찮습니까. 그리고요, 저 아까 학설로서 1945년 이후의 학설, 일본측의 학설의 정리, 거기서는 내 이름을 실어 주어서 고마웠는데요,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빼뜨렸습니다. 그것은 鈴木良一이라는 사람. 네, 鈴木良一. 이 사람은 池內 선생님에게 배워서 池內선생님이 확실하게 실증한 그것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文祿·慶長의 役의 연구가 있었지만 그, 조선인민의 저항 자체가 없었다는 시점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역시 鈴木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池內선생님에게서 배워서, 池內선생님은 사실을, 확실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요컨대 일본과 조선의 인민들에게 이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전후 일본의, 1945년 이후, 일본의 임진왜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

吉田：저기, 죄송하지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또 개별로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논점, 질문, 의견... 네, 그럼 田代선생님이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정구복：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北島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 사실이나 연구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鈴木先生이 현대 일본의 임진왜란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北島先生님의 연구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경도 租稅牒에 대해서 芝氏가 1905년에 《史學會》에 실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판에 池內가 저서에서 처음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池內 선생이 조선 정벌에서 文祿·慶長의 役이라고 한 것을 저는 발전적인 것으로 보거나 또는 좋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文祿·慶長이라고 한 것은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선의 정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池內 선생은 조선과의 전쟁이 아니라 명나라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朝鮮征伐을 文祿·慶長의 役이라고 칭했

으니 이를 높이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吉田 : 감사합니다. 그러면 橋本씨가 하나, 의견이 있습니다.

橋本 : 저기, 일본어판 8페이지. 주 31번, 고문서의 해석. 32번이군요. 저기, 두가지 문 제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의 주인장의 「彼地」입니다만 이것은 「寧波」. 「博多」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仰せ付ける」, 저, 「仰付」라고 쓰는데요, 이 뜻은, 저, 써 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달하다」나 「문장을 주고받아서 전달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어의 고문서에서는 뜻이 달라서, 거기에 써 있습니다만...

정구복 : 예. 橋本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주 32(본논고 주35)에 관한 질문인데 거기서 博多津은 이 寧波라고 하는 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橋本 : 아, 이 쪽의 博多가 아니고요. 그 쪽...

정구복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彼地는 寧波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博多를 앞으로 치겠다고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앞에서 나온 博多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 문장에서 寧波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可被仰付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池內씨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래서 가지고 전체 문맥으로 봐서 대체로 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可被仰付에 대한 해석은 일본 고문서를 전공하지 않은 저로써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본 고문서를 연구한 사람들의 견해를 앞으로 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可被仰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이유는 전체의 문맥으로 보아, 그 곳을 치겠다던가 공격하겠다고 해석하면 그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층 더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吉田 :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끊겠습니다. 아,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의 단계로 넘기기로 하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맨 마지막의 결론부분입니다. 이것은 교과서문제와의 관련입니다. 그 한국어판의 16페이지. 9번째 줄.

그 「국민의 역사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읽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현재의 역사학자들의 연구성과보다는 자신들이 배웠던 과거의 역사적 지식이 역사인식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일본의 국가적 발전을 위하여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한다거나 은폐함은 결코 바람직한 일 이 아니다」 고... 이렇게... 일본측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구복 : 예. 제가 일본측을 지도한다는 뜻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역사모임교과서’에서 쓴 책을 제가 읽고 후소사에서 발행되기 직전에 그 책의 원고를 읽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근대 편에서 한국의 지도, 동아시아의 지도를 그려놓고 일본에서 한반도를 쳐다볼 때 유사시에는 일본을 향하고 있는 흥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 한국 측의 거센 항의로 이것이 조금 수정됐지만, 한국에 관계되는 한일관계사의 기본시각은 그 책에서 만은 일제시대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吉田 : 저, 이것은 사실과 틀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세히 아시는 北島선생님.

北島 : 네. 이것은 특징 그룹만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비난을 해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吉田 :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얘기와 관련해서 그 다음 단락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써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일본어로는 「제2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전진한 역사관에 기초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외국에 관련된 문제는 극히 상대국에 혐오를 주는 표현은 절제된다. 일본의 경우 겸인정이기 때문에 외국에 혐오를 주는 자국 중심의 표현을 절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인정교과서보다 국정교과서가 좋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계신다고 확인해도 됩니까. 두 번째, 그러나 한국에서 도 근현대사 교과서는 겸인정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정구복 : 일본의 모든 교과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특정한 교과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검인정이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좋은 것이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의견을 저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외국과의 관련사항에 관해서만 얘기입니다. 국정 교과서에서는 이웃 국가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만,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여러 집필자가 다양하게 쓰는 것에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 역사관을 통제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정 교과서에서 이제는 개인들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실을 수 있는 검인정 교과서로 나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도 그것을 적극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吉田 : 그러나 여기서는... 여기서 기술한 내용과 다르군요.

정구복 : 그것이 제가 그 처음 일본어판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썼는데, 이것이 한국측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국어판에서는 문장을 좀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을 읽어보시면 큰 오해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吉田 :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田代 선생님 부탁합니다.

손승철 :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언제까지 할건지, 먼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아니 더 해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시간을 정해서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일단 정해놓고 하는 것이...

吉田 : 자자, 2시간이니까요, 시작해서 12시 20분, 2시간 후입니다. 나머지 12분 정도.

손승철 : 충분합니까. 그 시간에...

田代 : 저 말입니다, 제2분과의 작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7월

7일에 우리는 세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사 정리를 하고, 그것을 지난 3월에 서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올해 1년 내내 개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병행하면서 거기서 나온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지향의 문제를 제기해서 새로운 개별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번 제1회부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오늘 선생님의 연구를 보면 그것은 과거의 연구사를 정리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더한 것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것은 연구사 정리 쪽으로 포함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한국어판의 8페이지입니다. 주 20에 저희들의, 일본측에서 발표한 저, 文祿·慶長의 役의 研究史料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주 20입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이것에 상당히 많이 근거해서 연구사 정리를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이 표지를 보십시오. 오른쪽 아래 부분에 「引用不可」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정구복 : 이 본인의 연구 발표가 지난번에 발표한 연구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양국의 역사인식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나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사에 관한 경향은 주로 연구사 쪽에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용 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의 공동연구로 인해서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만은 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썼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호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구사 문현 목록이 앞으로 수정되면 이 주석도 수정이 될 것입니다.

田代 : 그것은, 저, 를 위반입니다.

손승철 : 아니, 저도 田代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완성이 되면 일반인에게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인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 발표에는 인용할 수 있겠지요. 발표에서는, 자체에서는... 자체 내에서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인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문서로 될 때는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文祿·慶長의 役의 연구자세 검토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의 분과회에서 연구사, 그, 특히 일본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검토하자는 것으로 오늘 오후부터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구복선생님의 발표를 보니까, 그

내용은 연구사로서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지향이 있었는지 하는 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1945년 이후의 각 발표도 함께 묶어서 검토하시면 훌륭한 연구라고 하겠는데, 그것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吉田：저기, 연구사 정리를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배포된 연구사 정리를 재검토하기 위해 오후에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구복：아, 그것은 歷史觀이나 史學史의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에 연구사적인 것이 밑에 깔려 있지만, 그 연구사를 學說 史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저의 논문의 골격은 제5절 임진왜란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보완되면 연구사와는 다른 별도의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田代：저, 이번에 전혀 원고가 없는 임진왜란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읽어달라고 하네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이것을 그 개별연구 하면서 읽으셨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복：아, 그 원고는 본 학술회의가 종결되기 전에 다시 한번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가지고 상호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吉田：이것은 저에게서 마지막 희망인데요, 선생님의 연구, 사학사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일본에서 읽을 경우 근거가 거의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인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아주 참고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정구복：예, 보강 하겠습니다만 근거로서 많은 자료를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사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요구는 결례가 아닌가 합니다.

吉田：뭐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승철 : 그럼 한국 쪽의 발표와 토론은 일단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입장이나 이야기를 계속해 가면서 내용을 보강해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吉田 : 네, 오늘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